

# DJ “교황 구명 친서 공개돼 기쁘다”

## “5·18 성과 재평가 계기되길”... 국제사회 구명활동 재조명

‘5·18 민주항쟁’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을 요청한 고(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친서가 처음으로 확인(본보 19일자 6면)된데 대해 김 전 대통령은 19일 “늦게나마 친서가 공개돼 기쁘다. ‘5·18’이 일궈낸 민주화 역사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이 교황의 구명 편지가 광주일보에 공개됐다는 사실을 듣고 크게 감동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은 김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으나 그 내용을 접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전 대통령은 이번 일이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교황의 친서가 확인되면서 80년 당시 암울했던 시대상황과 긴박했던 국제사회의 구명활동도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이 친서는 당시 교황이 ‘5·18’을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구명에 직접 나섰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5·18’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 자료가 되고 있다.

본보가 발굴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친서에는 80년 전후 김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80년 12월 11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김대중)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지 불과 몇새 뒤였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81년 1월 5일 답신을 통해 “(김대중)은 반국가적 범죄로 인해 재판 받고 있다”면서도 “동인에 대한 재판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여론을 남겼다.

김 전 대통령은 이 답신이 작성된 지 18일 뒤인 1월 23일 형량에 대해

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건진 배경에 요한 바오로 2세의 편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5·18 당시 ‘내란음모 사건’ 주동자로 몰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은 지난 2005년 공개된 ‘체로키(Cherokee)’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이 문서에 따르면 80년 11월 21일 당시 클라임스틴 주한 미대사가 전 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DJ가 처형당한다면 한국과 미국 신정부(레이건 정부)가 상당한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특별한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신군부가 ‘5·18’이 김 전 대통령의 배후 조정에 의한 것이라고 조작한 사건이다.



‘로케트’ 고공공사 70일만에 중단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CCTV 철막에 올라가 회사 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70일간 고공농성을 벌여온 (주)로케트전기 해고노동자 2명이 19일 건강상의 이유로 농성을 풀고 119 굴절사다리차를 통해 내려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순천 20대 등 2명 동반자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녀 2명이 강원도 정선에서 동반자살했다. 19일 오후 2시20분경 강원도 정선군 곰봉산 정상 부근 도로에 주차된 군용 승용차 안에서 정모(27·순천시)씨와 이모(18·경북 경주 모 교고 2년)양 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김모(6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조수석에선 화력과 타다가 남은 연탄 2장이 발견됐다.

10대 청소년들 동원 동거녀 낚시

○순천경찰은 19일 10대 청소년들을 동원해 동거녀를 낚시한 박모(4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 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20분경 순천시 조례동의 한 술집에서 동거녀 K(여·47)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

○경찰은 차장 추적을 통해 K씨와 함께 있던 박씨를 안양에서 검거.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이제 5·18 30 주년을 준비하자

## 형 구호만 요란한 ‘진국화·세계화’

# 예산 해마다 줄어...행사 되레 축소

### 전국적 행사 치르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

### 또 민주·인권단체 연대 강화...세계화 이끌어야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시민이 원하는 ‘5·18 진국화와 세계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제 29주년 5·18 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지난달 23일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올 기념행사는 ‘5·18의 진국화’를 염두에 두고 기획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을 제외한 전국 8개 시·도에서 5·18 사진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해 내년보다 진일보한 ‘전국적’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각 시·도 행사에 예산이 늦게 지원되면서 강원도 등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일부 지역은 기

념행사가 일정보다 지연되는 등 손조를 지 못했다.

행사위는 국가보훈처 지원예산이 지난해(1억3천500만원)보다 26% 줄어든 1억원에 그쳐 18일 광주시 금남로에서 열기로 했던 ‘해방 광주’ 행사가 취소되는 등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최근 3년 연속 감소해 행사위는 내년 제 30주년 기념행사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행사위 관계자는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 없이는 5·18의 진국화도 세계화도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예

산이 확정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진국화 못지않게 5·18의 세계화 또한 5·18 ‘30돌’을 앞둔 광주에 주어진 과제다.

5·18민주묘지와 금남로 등 5·18 행사장을 찾는 외국인들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따라서 5·18을 세계에 알리는 ‘5월 전도사’ 역할을 하는 이들을 통해 5·18의 세계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광주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통로가 되고 있는 ‘광주 아시아인권 학교’와 ‘국제인턴’ 등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민주·인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시아 민주·인권단체와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9년 광주인상식 시상식에 대신 참석한 아웅 모 밌트(Aung Myo Myint)씨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버마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광주민주항쟁을 민주화의 표본으

로 여긴다”고 말했다.

18일 광주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한 쿠르드족 인권운동가 아스마일 머르삼(47·Mersham)씨 또한 “5월 광주를 체험하기 위해 해마다 인권 운동가를 비롯한 수많은 외국인이 광주를 찾는 등 5·18은 스스로 세계화 되어가는데, 정작 광주만은 80년 5월을 잊은 것 같아 아쉽다”며 “5·18은 광주시민의 것만이 아닌 민주와 정의, 평화 등을 열원하는 쿠르드족을 비롯한 모든 세계인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민주항쟁 29주년 행사위원회 안성태(여·71) 상임행사위원장은 “5·18의 진국화와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29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했지만, 보훈처 지원예산 감소와 대통령령의 기념식 불참, 5월 단체의 분열 등으로 광주 행사는 물론 전국행사도 손조롭지 못했다”며 “광주시민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형희기자 khh@kwangju.co.kr

# 공사대가 돈 받은 무안군청 과장 체포

### 순천 미나리작업장서 40대 女 숨진 채 발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19일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무안군청 과장 A(56)씨와 돈을 건넨 S건설 대표 B(46)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 ‘가입지구 발기반공사’ 하도급업체인 S건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무안군이 S건설에 지급한 공사 준공금 1억3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가 제3자 명의의 통장 등을 직접 관리한 점 등으로 미뤄 또 다른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새벽 1시15분경 순천시 해룡면 박모(47)씨의 집 미나리작업장에서 박씨의 아내 장모(42)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발견 당시 장씨의 머리에 둔기로 얻어맞은 흔적이 있었으며 심한 출혈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데이터베이스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권리사항/원본	대포이사 010-7578-7525	아파트/빌라	박경원이사 010-2611-5598	주택/세개방	이영철사무 010-3633-9011		
소세지	대지/건물	건평/가	비고	소세지	대지/건물	건평/가	비고
승용차	대127,2175	591선	398선	원형24세대	대128,2180	591선	398선
신원	대127,2191	895선	492선	원형11세대	대129,2196	895선	492선
원형	대82,2147	493선	399선	원형20세대	대83,2153	493선	399선
원형	대72,2155	299선	298선	원형4세대	대73,2161	299선	298선
신원	대98,2198	898선	498선	원형20세대	대99,2204	898선	498선
신원	대67,2153	393선	198선	3층 다가구	대68,2159	393선	198선
노인원	대88,2203	597선	392선	주유소,가든	대89,2209	597선	392선
오일	대131,2159	491선	293선	교학수원	대132,2165	491선	293선
원형	대119,2199	1119선	629선	신축원형	대120,2193	1119선	629선
원형	대137,2201	1995선	897선	5층 유원터	대138,2207	1995선	897선
원형	대83,2174	398선	195선	4층 건물	대84,2180	398선	195선
원형	대63,2137	519선	239선	미트,사우나	대64,2143	519선	239선
원형	대145,2131	991선	591선	4층 건물	대146,2137	991선	591선

속박사실/상기 경이사 010-5879-0905

권리사항	박경원이사 010-2611-5598	공장/토지	손혜연이사 010-9611-2817				
소세지	대지/건물	건평/가	비고	소세지	대지/건물	건평/가	비고
원형	대40,2167	195선	91선	3층근린주택	대41,2173	195선	91선
원형	대50,2184	394선	293선	4층근린주택	대51,2190	394선	293선
원형	대34,2154	194선	499선	3층근린주택	대35,2160	194선	499선
원형	대67,2153	393선	293선	3층근린주택	대68,2159	393선	293선
원형	대145,2131	991선	694선	4층근린주택	대146,2137	991선	694선
원형	대231,2131	1099선	194선	3층근린주택	대232,2137	1099선	194선
원형	대123,2170	494선	391선	2층근린주택	대124,2176	494선	391선
원형	대124,2170	1099선	399선	5층근린주택	대125,2176	1099선	399선
원형	대802,2137	6499선	299선	7층근린주택	대803,2143	6499선	299선
원형	대157,2131	797선	493선	5층근린주택	대158,2137	797선	493선
원형	대228,2162	797선	399선	3층근린주택	대229,2168	797선	399선
원형	대105,2128	499선	193선	2층근린주택	대106,2134	499선	193선
원형	대50,2198	999선	999선	2층근린주택	대51,2204	999선	999선

평원

대138㎡, 21196㎡  
 평원 1119㎡  
 원형 82㎡  
 원형 82㎡  
 원형 82㎡

원형

대802㎡, 21137㎡  
 평원 6499㎡  
 원형 299㎡  
 원형 299㎡  
 원형 299㎡

원형

대128㎡, 2170㎡  
 평원 494㎡  
 원형 391㎡  
 원형 391㎡  
 원형 391㎡

원형

대124㎡, 2170㎡  
 평원 1099㎡  
 원형 399㎡  
 원형 399㎡  
 원형 399㎡

원형

대802㎡, 2137㎡  
 평원 6499㎡  
 원형 299㎡  
 원형 299㎡  
 원형 299㎡

원형

대157㎡, 2131㎡  
 평원 797㎡  
 원형 493㎡  
 원형 493㎡  
 원형 493㎡

원형

대228㎡, 2162㎡  
 평원 797㎡  
 원형 399㎡  
 원형 399㎡  
 원형 399㎡

원형

대105㎡, 2128㎡  
 평원 499㎡  
 원형 193㎡  
 원형 193㎡  
 원형 193㎡

원형

대50㎡, 2198㎡  
 평원 999㎡  
 원형 999㎡  
 원형 999㎡  
 원형 999㎡

**대한민국 단 하나의 모방할 수 없는**  
**특히 기술, 척추 건강을 위한**  
**의자 선택 - 바우인체어**

**바우인체어는 올바른 척추 보호 뿐만 아니라 이미 흐트러진 체형도 바로 잡아줍니다.**  
**하루의 절반은 앉아있는 사람 바우인체어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BK 500 BK 400 BK 350 BK 300

◆ 판매처: 남광주사거리 한보가구 **바우인체어**  
**062)225-5100**  
 \* 취급점: 다중사무용기구 (062)233-3399 금남로시몬스점 (062)527-1575 www.baukorea.com